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 2시부터 선교회별 월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집회는 교회 100년사를 쓰고 계신 조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청파행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합니다.

<푸른언덕> 특별호 간행을 위해 원고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요일 이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100주년 행사관련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담당하는 미디어팀 회의가 오늘 오후3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지하친교실에서 제8여선교회가 <청소녀 쉼터> 후원을 위한 일일 찾집을 엽니다.

손성현 전도사님 가족(안경아, 민호, 민아)이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학교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담임목사실에서 모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나무나 꽃을 심어보십시오(화분). 그리고 정성을 다해 돌보십시오. 생명을 가꾸는 것은 자기 마음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 아 부 | 10:50 | 유아부실 | 1부예배 | 09:30 | 교육관 |
| 유 치 부 | 10:50 | 유치부실 | 2부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 육 관 | 오후집회 | 14:00 | 교육관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 년 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은총으로 수놓으신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난만하게 피어난 꽃들은 환한 미소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계곡의 물줄기도 흘러내리며 생명을 품어 안습니다. 바야흐로 세상은 창조의 새벽인 듯 환합니다. 하지만 사람살이의 현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순간 신음소리를 깨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습니다.

주님,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고, 때로는 넘어지곤 하는 우리들을 붙잡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뒤에서 잡아채는 덧없는 쾌락, 쓸데없는 염려, 도움 받기를 싫어하는 교만함, 십자가를 벗어 던지려는 영적인 비겁함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팍팍해진 가슴마다 훈훈한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장영숙 조병무 송양진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한상익 정영선 구명자 김인걸 문영혜 이광용 형인순 김일랑
 이은옥 김중수 이순정 김지윤 박규석 박경선 김희진 박홍재 방 민
 윤영원 이선희 임 영 정경례 조관행 홍선희 조문규 진정숙 최종원
 임고운 홍순구 안홍숙 정미경 김지호 안종일 정현주 권미숙 박지인
 황지현 권아주 무명1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김 극 김영한 이희균 박석희 조항미 박옥순 왕수명
 이봉배 이성범 황원순 황자순 김순자 박찬정 최동윤 박범희 박미영
 이동천 최철수 곽권희

감사헌금:

조병무 송양진 조병주 정복순 김동일 박두석 이건화 이봉옥 김재영
 장재영 김현영 정원석 오재환 무명6

생일감사헌금: 김진경 김종철 정은영 **우물헌금:** 이유일 김미희

100주년 기념헌금 :

전영규 김혜권 안종일 정현주 박준희 이기분 최윤희
 (100주년 헌금 누계 : 172,035,000원)

| | | | | |
|--|-----|-----|------------------|-----|
| | 장혜숙 | 장혜숙 | 연 합 수 액 | 오송경 |
| | 노순옥 | 정경례 | | 김영한 |
| | 임정자 | 임정자 | | 이재문 |
| | 문영혜 | 박경선 | | 박정숙 |
| | 안정숙 | 박애순 | | 최희영 |
| | 박홍재 | 곽권희 | | 김경수 |
| | 박호선 | 허정윤 | | 홍복선 |
| | 최숙화 | 권미정 | | 이기분 |
| | 이순정 | 김금순 | | 이순정 |
| | 이형숙 | 권미숙 | | 이정은 |
| | 안홍숙 | 오현정 | | 오현정 |
| | 백혜숙 | 정옥영 | | 백혜숙 |
| | 송양진 | 유경순 | | 박옥식 |
| | 이영란 | 박미영 | | 방극숙 |
| | 박혜경 | 최영혜 | 최영혜 | |

눈물 한 방울이 되어

-- 김창범

두 눈을 감고서야

그들이 둘러싼 모든 벽들이

종잇장보다 얇다는 것을/알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서야

그들이 움켜쥔 모든 무기들이

숨사탕보다 쉽게 녹아버린다는 것을/알았습니다.

두 무릎을 꿇고서야

그들이 억누르는 힘과 힘의 어깨들이

바람보다 빨리 꺼져간다는 것을/알았습니다.

아, 울먹이는 기도 소리가

모든 벽들과 모든 무기들과

억누르는 힘과 힘의 어깨들을 쓰다듬으며

터질듯한 투명함으로 떨어진다는 것을/알았습니다.

이 아침/은땀으로 깨어지면서도

그림자 하나 소리 하나 남기지 않는

눈물 한 방울이 되어.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람들의 발 앞에 있는 걸림돌은 치워주며 사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무너진 다리를 이어주며 사십시오.

아멘. 주님이 명령하시니 그 명령을 힘써 받들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황무지든 늪지대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머무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주님의 현존을 삶으로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 집회 |
|-----------------|-------------------|
| 선교회별 월례회 |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
| 찬양 인도 / 이성운 전도사 | 기도 / 백혜숙 권사 |

| 다음 주 예배위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 김민주 선생 방문성 장로 | 인도자 조항범 권사 |

| 4월 | 영접위원 | 구성실 김용길 이종현 박규석 최영혜 박경선 |
|----|------|-------------------------|
| | 헌금위원 | 구성실 김근중(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판단하지 말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의 가장 좋은 행위는 봉사가 아니라 묵상하고 보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고 지지해 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다. 그들의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선행을 보게 될 때, 당신은 변화하고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 낸다.

당신이 좋아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들에 대한 과거의 지식과 경험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려고 시도해 보라. 그들에게서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미처 눈여겨보지 못하고 놓쳤을지도 모르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 보라. 친밀함은 진부함과 맹목적인 권태를 낳기 때문에 놓치고 지나치는 수도 있다. 당신은 새롭게 볼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없다.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해 보라. 첫째, 그들에게 당신이 싫어하는 어떤 점이 있는지 관찰하고, 공명정대하고 초연하게 그들의 결점을 연구하라. 이것은 그들에게 ‘우쭐거린다, 나태하다, 이기적이다, 거만하다’ 등의 꼬리표를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정신적인 나태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어떤 사람을 독특한 그 남자 혹은 그 여자로 보는 것은 어렵고 도전적인 일이다.

당신은 이러한 결점들을 분명하게 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우선 당신의 객관성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그들의 결점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결코 결점이 아니며, 사실은 당신이 어렸을 때 받은 교육과 틀이 싫어하도록 유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보라. 이렇게 한 후에도 여전히 결점이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과거의 틀, 잘못된 생각과 인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태도는 사랑과 용서로 바뀔 것이다. 연구하고 관찰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점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 이제 당신이 싫어했기 때문에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 보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에게 일어나는 태도의 변화나 느낌을 관찰하라. 혐오가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고 보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제 함께 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로 옮겨서, 이런 식으로 그들을 보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 눈에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관찰하라.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봉사의 행위보다도 무한한 사랑의 선물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마음속에서 그들을 변형시키고 창조하는 것이며, 당신과 그들 사이에 확실한 접촉이 자꾸 이루어지면서 그들 역시 실제로 변화될 것이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주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다. 똑같은 절차를 따라서 해 보라. 결점에 대해서도 노이로제에 대해서도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당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제 당신도 심판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이해는 사랑과 용서를 이끌어 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점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기묘한 사랑의 태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당신의 자아를 향해 변화되고 있다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 안에서 생겨나서 당신을 통해 살아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로 옮겨간다.

--안소니 드 멜로, <<사랑에 이르는 길>> 중에서

